

사업장에서의 위장질환 간호사례 및 실태(I)



LG전자 김해공장 보건관리자

백 남 둘

그 옛날의 위장병은 비위생적인 식생활과 굽주림으로 인한 잦은 결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생활이 풍족해진 지금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인된다고 한다.

건강관리실 이용자의 많은 수가 소화기계질환자임을 볼 때 위장질환은 사업장내 가장 흔한 질환임에 틀림없다.

사업장에서의 위장질환은 상담을 통해서 혹은 종합검진을 통해서 check가 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 건강검진만으로 질환의 형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기 쉽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흡하나마 자사의 위장질환 관리사례를 소개하여 위장질환 근로자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I. 서 론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 있는 산업간호사들도 공감하리라 믿는다.

II. 본 론

1. 회사소개

설립 : 1979년 12월 20일
업종 : 폼프, 모터제조
인원 : 총 1,178명(남 : 896명 여 : 282명)
주소 : 경남 김해시 안동 259-1번지
근무형태 : 주간, 2교대, 3교대 근무를 고루 갖추고 있음.

2. 위장질환자 현황

일반검진이나 특수검진으로 위장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종합검진 결과만 표시함. 종합검진의 gastro-endoscopy나 U.G.I series로 위장질환자를 check.

1) 종합검진결과(96년)

(35세, 40세이상 근로자 194명)

구 분	위 염	위궤양	심이자궤양	식도궤양	위 암	소 계
C판정	8명	4명	2명	1명		15명
D판정		9명			2명	11명

종합검진자 194명 중 178명이 기타 질환으로 C, D 판정받았으며, C, D 판정자중 위장질환은 26명으로 14.6%로 지방간 17.97%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참고) 종합검진 : 35세 이상~39세 근로자 - 1회/2년
 (배우자 - 1회/2년)
 40세 이상 근로자 - 매년 실시
 (배우자 - 1회/2년)로 실시중임.

2) 위장질환자의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 (96.1~11월)

구 분	월 이용자	소화기계
1월	342	116
2월	314	109
3월	375	126
4월	457	132
5월	368	118
6월	395	122
7월	423	130
8월	362	132
9월	329	110
10월	376	117
11월	327	119
소계	4,068	1,331

1일 평균 이용자 수 20명
 월평균 근무일 수 : 20일
 소화기계 이용자 수 32.71%

3) 건강 상담 일지 중 소화기계 관련 상담건수
 총 상담 52건 중 29건이 소화기 관련내용으로
 55.7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3. 위장질환자 관리

1) 위장 질환관리에 따른 문제점

가. 무절제한 식습관

-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아침을 거르고,
밤 늦은 저녁식사.
- 교대근무로 인한 식습관 리듬의 변화
- 자국이 강한 음식의 선흐

- 아침의 결식과 점심의 폭식

나. 급하게 먹는 식습관

- 배식구의 부족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집으로 점심시간이 자연히 줄어들어 급하
게 먹음(좌석은 800석이지만 배식구가 4
곳으로 인원에 비해 부족)
- 점심시간의 빠른 템포의 음악이 더욱 급하
게 먹도록 유도.

다. 지나친 흡연과 음주

라. 스트레스

마. 가족적인 요인

2) 문제해결

① 개인적 측면

- 가. 질환의 원인 및 발병과정 전반의 교육
- 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질환자 중심의 주기적인
상담으로 금연과 음주절제를 유도.

- 다. 병원진료를 의뢰 진료비 지급(본인부담 의료
비 지원제도 활용)

② 사업장 측면

- 가. 4곳이던 배식구를 8곳으로 늘려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점심시간의 여유를 갖게함.
- 나. 점심시간의 음악을 조용하고 밝은 음악으로
바꾸어 느긋하게 식사하도록 함.
- 다. 위장 질환자를 위한 저자극식단을 준비하여
1곳의 배식구를 배정함.

3) 간호사례 예

위암 절제술을 받은 근로자의 간호

현재 종합검진으로 2명이 위암 판정 받았으며, 1
명은 상담을 통해 병원진료를 의뢰하여 밝혀진 경
우로 총 3명의 위암 절제술을 받은 근로자가 있으
며 2명은 복직한 상태이고 1명은 현재 휴직 2개월
째이다.

가. 근로자

- 나이 : 28세
- 성별 : 남
- 입사일 : 91.10월
- 키 : 160cm
- 몸무게 : op전 68kg op후 57kg
- 근무형태 : 주간(오전 8:00~오후 5:30, 임업 시 7:30pm)
- 작업형태 : 스프레이 페인트 도장 4년
- 식습관 : 아침은 불규칙적이며, 점심과 저녁은 대체로 규칙적이나 맵게 먹는 편임.
- 성격 : 내성적이며 소심한 편임.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안하려 함.
- 흡연, 음주 : 거의 안함
- 가족형태 : 형 - 위궤양 출혈로 위절제술 받은 경력 유.

부친 - 중학교 때 자살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며 근로자 본인의 수입으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나. 발견 과정 및 치료

95년 11월 중순부터 가끔씩 건강관리실 방문 후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상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2월 초 5번째 방문시에는 짜증과 식욕부진, 갑갑함, 복통, 구토, 변비를 호소했으며 당시 체중변화는 1~2kg 감소로 크게 차이는 없었다.

종합병원의 정밀검진을 권유했으나 젊은 사람이 별일이야 있겠냐며 한사코 거부하여 몇차례의 설득 후 1월말 병원에서 검진결과 악성 위종양 2기로 판정을 받고 2월 중순에 위절제수술(80%)을 받고 2주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휴식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복직시 중재

6개월간의 휴직을 끝내고 월 1회 병원 진료로 약

물 복용하며 정상생활이 가능하여 복직하려고 했을 때 사업주 측에서는 혹시 큰일이 생기거나 않을까 복직을 꺼렸고 근로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가능한 한 빨리 복직을 원했다.

담당의사와의 면담으로 가벼운 작업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받고 복직을 승인했으나 기존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도장작업과 거리가 먼 작업실이 따로 있는 앉아서 자재관리를 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도록 하였다.

식사량이 줄어 정상인에 비해 공복감을 늘 가지고 있어서 1일 3식만으로 체력유지가 어려워 담당반장, 계장, 관리자께 협조를 구해 오전 오후 간식시간을 갖도록(집에서 가지고 온 과일 요플레 등) 하였고, op후 3개월동안은 1일 6식을 했으나 점차 줄여서 9개월이 지난 복직후에는 1일 3식으로 회수를 줄였다.

식사량의 감소로 빈혈이나 영양실조에 걸릴 우려가 있어 식당 영양사에게 의뢰하여 고단백 식단표를 만들어 가정에서도 균형적인 식사가 가능하도록 3명 모두에게 식단표를 주었다.

1일 8시간 근무의 임업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며 병원 진료일은 철저히 지키고 병원방문일에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소속부서에 배려를 구했다.

현재 위 절제술을 받은 근로자들은 물론 주위의 동료 근로자들도 서로 이해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III. 결 론

위장질환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무절제한 식습관과 흡연, 음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환자 그리고 위암 환자의

상담결과 자신들 스스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 사람들의 성격이 대체로 매사 꼼꼼하고 내성적이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정신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관심과 근로자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요통이나 소음성 난청 혹은 유기용제 중독등 직업성 질환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근로자 건강문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질환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위장질환을 CHECK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일반질환이 직업성 질환과의 연관성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환의 조기발견 등 산업의학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근로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